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❻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 만남

▶ 한줄요약
〈석보상절〉 3권과 〈월인천강지곡〉 30장부터는 태자의 이름 유래와 가족 관계, 성불 예언들이 담겼다. 또한 아들의 출가를 막기 위한 아버지 정반왕의 부정(父情)도 애틋하다.



'부처 예언' 왕자의 출가 막아라

'싯달타 태자' 탄생

삼십장

대보전(大寶殿)에 모이신 관상가(相師)가 보고 태자께서 출가(出家) 성불(成佛)하실 것을 압니다.

향산(香山)에 사는 아사타(阿私陁) 선인이 태자를 보고 자신의 늙음을 서러워하십니다.

삼십일장

어머님 단명(短命)하시나 (태자) 열 달동안 자라셔서 칠월 보름에 천하(天下)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드님 탄생하시고 (어머님) 이레를 계시다가 사월 보름에 천상(天上)에 오르셨습니다.

삼십이장

바라문 사륜 말씀을 천신(天神)이 좋다하므로 살바실달(薩婆悉達)이 이름이 되시니

아버님 명으로 태자가 하는 절을 천신이 말리시므로 천중천(天中天)이 이름이 되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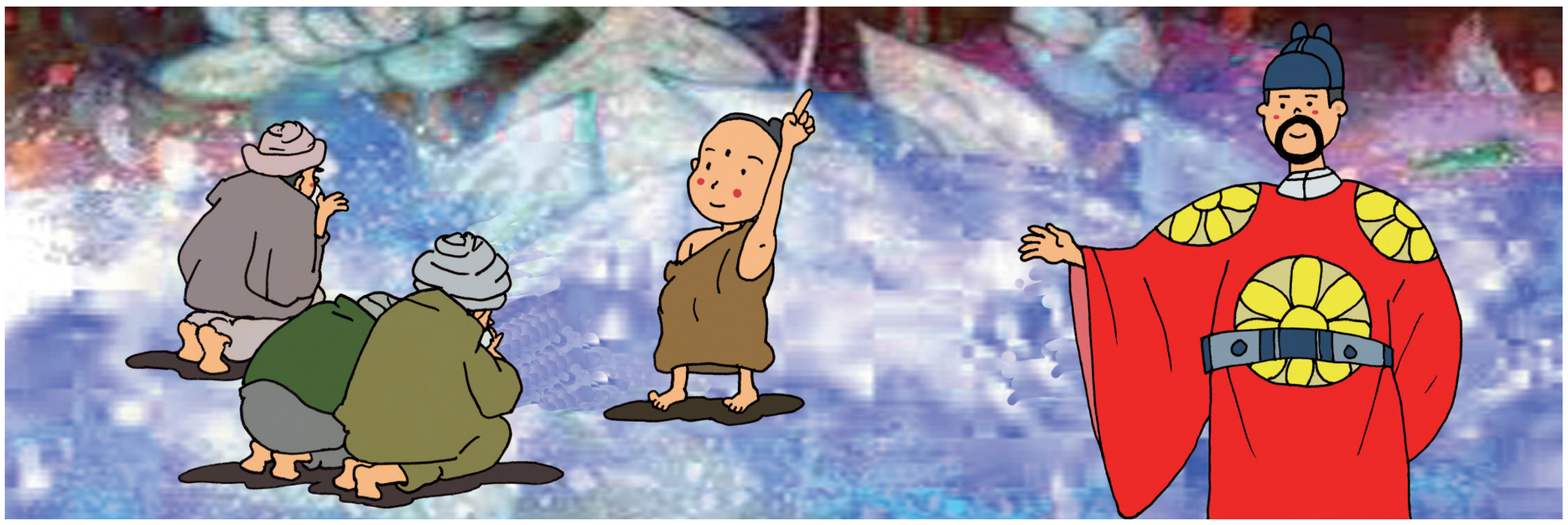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이것이 〈월인천강지곡〉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그동안 〈석보상절〉이나 〈월인천강지곡〉을 이름으로만 들었을 것이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본격적으로 지어진 유려한 첫 불경의 시 세계이다. '용비어천가' 이후 두 번째이지만 불교 게송으로는 첫 번째이다. 〈석보상절〉 권 3의 시작에 해당되는 싯달타 태자 탄생과 관상가 예언, 마야부인의 세상 하직, 태자의 이름 살바실달과 천중천의 유래를 요약해서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월인천강지곡〉 30장부터 32장까지이다. 〈월인천강지곡〉 1장부터 29장은 〈월인석보〉 1권과 2권에서 〈석보상절〉과 합편된 내용으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들 수양과 아버지 세종의 훈민정음 산문과 운문으로 이루어진 협업이 1459년 〈월인석보〉로 탄생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석보상절〉 중심의 이야기라서 운문 〈월인천강지곡〉을 게송 형식으로 뒤에 붙였다. 곧 이 순서대로 하면 불교경전의 형식이요 순서를 운문부터 하면 〈월인석보〉다.

싯달타 태자의 출가 막기

왕이 아사 타선인의 말을 듣고 태자가 출가할까 저어(염려)하여 오백명의 청의(靑衣)를 가려내어(골라서) 유모를 따라다니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시며 놀라고 하셨다.

또 삼시전(三時殿)을 지어 칠보로 꾸몄는데 세 계절에 사실 집이니 봄가을에 사실 집과 여름에 사실 집과 겨울에 사실 집이다.

풍류 잘하는 기녀(伎女) 오백명을 가려내어 서로 번갈아 모시게 하였는데 여기서 기(伎)는 잘한다는 뜻으로 기녀는 풍류 및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여자이다. 꽃이며 연못이며 갖가지 색깔의 새들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태어날 적에 관상가 500명을 전국에서 불러 왕자의 관상을 보게 하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이번에는 시중드는 사람 500명, 다재다능 엔터테이너 기녀 500명을 태자 곁에 둔다. 500의 의미는 무엇일까. 주로 '오백나한,' 비구니의 '오백계', 석가모니 부처님 입멸 후 500년 단위로 다섯 시기 '오오백년' 등이 쓰이고 있지만 〈석보상절〉에서도 '오백 동남동녀', '오백 석가족', '오백권의 책' 등을 볼 수 있다. 우리의 '한 오백년'도 여기서 비롯된 것일까.

이번 글에서도 지금은 거의 사라진 우리말 대잔치가 벌어진다. '저어하다'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두 가지가 잘 버무려진 우리 어휘이다. 단지 염려나 두려움만으로는 성에 안차는 두 어휘가 합쳐진 어감의 되살려 쓰고 싶은 우리말이다.

'기녀(伎女)'도 우리가 흔히 쓰는 '기녀(妓女)'가 아님에 주목할 것. 훈민정음 사전이라고 칭하는 협주에서 '기(伎)'는 '잘 한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금으로 치면 만능 엔터테이너정도가 될 것이다. 〈불설태자서응본기경〉에는 '너무 살찌거나 마르지도 않고 키가 크거나 작지도 않으며 너무희거나 검지도 않고 재능이 출중하고 솜씨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였다.

'삼시전(三時殿)'은 인도의 '건기, 우기, 몬순' 또는 '여름, 겨울, 우기' 등으로 이루어진 세 계절에 맞춘 계절 궁전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날씨 기준으로 봄 · 가을과 여름 별장, 겨울 별장으로 풀이하였다.

아버지 정반왕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왕자의 출가를 막기 위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기는지를 볼 수 있는 동시에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한 〈월인천강지곡〉 33장은 다음과 같다.

삼십삼장

태자의 출가를 관상가(相師)도 사뢰시며 선인(仙人)도 말씀하시니

정반왕이 밤낮으로 걱정(分別)하셨습니다

칠보궁전 꾸미며 오백 기녀(女妓) 가려내어 밤낮으로 태자를 달래셨습니다.

석보상절 3권 시작 부문엔
태자 이름 · 성불 예언 담겨
출가 막기위한 父情 '애잔'

〈월인천강지곡〉에서는 '기녀'가 아니라 '여기(女妓)'로 쓰고 '기(妓)'의 한자도 석보상절과 다르다. 〈석가씨보〉에는 '채녀(婇女)로 나와 있다. 텍스트 비교와 연구가 필요한 지점이다.

그때 태자의 나이가 점점 들거늘 왕이 보관을 만들어 주셨는데 관(冠)은 쓰는 것으로 보관(寶冠)은 보배로 꾸민 관이다. 영락이며 노리개들을 다 갖추어 주시니 나라가 온전히 편안하고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왕자가 무럭무럭 자라 한 살이 되고 두 살이 된다. 아이를 낳고 길러 보았거나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면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꺼질세라' 하며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것이다. 이모 대애도가 엄마가 되어 잘 키우고 있다지만 친엄마 마야부인을 태어난 지 7일 만에 잃은 아들을 보는 아버지 마음은 어떠했을까.

혹시라도 아들마저 잃지는 않을까. 세상에 둘도 없는 비범한 왕자인 것이 한편 기쁘다가도 출가를 한다는 예언에 전전긍긍, 걱정근심 끊일 날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아버지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 우선 머리에 보배로 만든 보관을 씌워주고 영락과 갖은 장신구로 꾸며 예쁜 궁녀들과 손발이 되어주는 시종들로 가득 채우는 것부터 시작한 것이다.

태자 7세 즉위식과 전륜성왕의 칠보

왕이 태자를 세우시려고 신하를 모아 의논하셔서 2월 여드렛 날 사해(四海, 사방의 바다)의 바닷물을 길려고 하시거늘, 신하들이 바닷물을 머리에 이어다가 왕께 바쳤다.

왕이 태자의 머리에 부으시고 보배로 된 도장을 주시고 북을 쳐서 명령하시기를 '싯달을 태자로 세우라' 하시니 허공에서 팔부가 모두 '좋습니다' 하였다.

그때 칠보(七寶)가 허공에서 다 오니 그 중 금륜보가 사천하에 날아가니 그 나라들이 다 항복하여 왔다. 칠보는 금륜보와 여의주보, 옥녀보, 주장신보, 주병신보, 마보, 상보이다.

한편 왕이 숫양을 모아 궁궐 안에 두시고 태자가 즐기게 하셨는데 태자가 양수레를 타고 동산에도 가시고 삼촌께도 가서 노닐었다.

아버지 정반왕이 왕자가 일곱 살이 되자 태자로 책봉하는 의식을 치른다. 2월 8일 사해의 바닷물을 길어다가 관정의식을 행한다. 신하들이 사방의 바다에서 바닷물을 길어 머리에 이고 왕에게 바친다. 왕은 싯달타 태자의 머리에 붓고, 보배로 된 도장을 주어 왕의 후계자라는 증표를 준다.

북을 쳐서 만천하에 태자가 되었음을 고하니 허공의 팔부신중까지 모두 '좋습니다' 하고 찬탄하였다는 것이다. 팔부신중은 '천 · 용 · 야차 · 건달바 · 아수라 · 가루라 · 긴나라 · 마후라가'를 말하는데 불교의 호법선신이다. 이 내용의 한문은 〈석가씨보(T50, p.90b)〉에 자세히 실려 있다.

'칠보'도 전륜성왕(轉輪聖王)이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의 보배, 금륜보(金輪寶) · 여의주보(如意珠寶) · 옥녀보(玉女寶) · 주병신보(主兵臣寶) · 주장신보(主藏臣寶) · 상보(象寶) · 마보(馬寶)를 말한다.

여기서 '금륜보'는 수레바퀴가 1천 살인데 보배로 꾸며 광명이 해와 달보다 더하고 이 수레로 임금이 아무 곳이나 가고자 하면 저절로 굴러 잠깐 사이에 천하를 다 돌 수 있는데 이 수레를 본 나라는 항복한다고 한다.

여인을 보배로 치는 '옥녀보'도 눈에 띄는데 '옥과 같은 이상형의 여인으로 몸이 겨울에는 덥고 여름에는 차다. 입에서 청련화 향내가 나며 몸에서 전단 향내가 나고, 음식을 먹어도 자연히 스러져 용변 뒤보기를 하지 않고 여자의 생리 현상이 없다. 머리카락의 길이가 몸과 가지런하며 키가 작지도 크지도 않고 살이 찌지도 여위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본 '기녀'와도 상통한다. 여성을 보배의 일종으로 다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형의 여인상을 형상화한 고대인의 사고방식을 보아주시기 바란다.

한편 태자를 위한 꽃동산을 만들어 즐겁게 놀도록 하였는데 숫양으로 만든 수레를 타고 동산을 돌아다니거나 숙부네 집에도 가서 놀았다는 것이다. '아자바님(작은 아버지)'을 친숙(親叔)이라고 하며 〈불본행집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숙부, 삼촌, 아저씨'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드디어 이렇게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이 만났다. 〈월인천강지곡〉은 게송의 성격이 크지만 '오백 기녀'에서 같은 단어 다른 한자에서 보듯이 여러 경전에서 가려 뽑아 작성하였다는 '상절'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호는 〈월인천강지곡〉 34장과 스승보다 뛰어난 싯달타 태자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